

사설

조계사 성역화 '후회없게'

조계종이 총본산 조계사를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은 원칙적인 면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대작불사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했다. 이 설계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계사는 그동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신행공간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계안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조계사를 '절답게' 꾸미겠다는 것이다. 조계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지만 의외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웅장한 법당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이 찾아오다도 실망만 안고 돌아가기가 예사였다. 이는 물론 도심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공간배치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절을 절답게 가꾸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었다. 이번 설계안은 우선 이러한 아쉬움을 보충할 구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 한가지는 조계종의 행정기구인 총무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건물은 낡고 협소한 데다가 바로 법당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에도 좋지 않았다. 더욱이 여러 차례 분규에 휩싸이면서 마치 '종단 싸움'의 상징처럼 흉물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설계안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찰공간에서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 법당보다 낮게 짓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성역화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곧 착공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안에 대해 이견을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문

가적 안목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설계안이 일반불자의 기대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가장 큰 이견은 총무원 청사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것이다. 몇년전부터 조계종이 총무원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구상이 나왔을 때부터 불자들은 기왕에 하는 대작불사라면 좀더 큰 회관을 지어서 총무원은 물론 불교의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불교회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설계안에는 이러한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는 현재 법당 건물을 그냥 놔둔 채 공간배치를 하다보니 좌우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법당 앞으로 부속 건물을 지겠다는 계획은 설계안만으로도 대지가 부족해 보인다. 또 그같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들리는 말로는 법당을 이전 못하는 것은 풍수적(風水的)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안된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이유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안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사 성역화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본산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불교가 미래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중흥 길로 나아가 갈 것인가를 상징하는 사업이었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적 안목이나 이해보다는 미래적 안목과 의욕을 담아야 할 터인데 이 점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착공까지는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서 후세에 넘겨주어도 자라할 만한 불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선원 안거이력 전산관리

조계종, 법계제도·승려노후복지 자료로

'선원총람' 연말 발간

그간 비밀스런 공간으로 남아 있던 전통선원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현황 파악과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자종종의 선양과 선원 수행대중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승공진작을 위해 전국 선원(총림 5, 비구 43, 비구니 37, 국제 2곳 등 87곳)의 안거 결계 대중의 명단(용상반 등재 기준)을 취합해 종합적인 전산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려법' 제 37조의 '선원 또는 수도원의 장은 안거성만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15일 이내에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준법 조항을 뒷받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선원관리방안이다.

교육원은 이에 따라 전국선원수조회와 총무원 총무부의 협조 아래 △조계종 87개 선원(선화

원 포함) 용상방에 등재된 대중명단(매번 2천여명 결계) 취합 △전국선원수조회와 △전국선원정진대중 명단) 발간 지원 △안거 성만자의 수행이력을 종합 전산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준비중인 <선원총람> 발간 사업과 연계돼 그간 기초자료가

전무했던 전통선원의 역사와 현황 파악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올 연말에 발간예정(현재 70% 진행)인 <선원총람>은 역대 선사행장, 선원연혁, 선백도, 주요 선사 결계법어, 관련 문헌 및 사진자료 등을 갖추어 선원의 역사와 전통, 운영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갖추게 될

조계종 임시총회 9월13일 열기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18일 의정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제142회 임시총회를 9월 13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후 총회사무처장 영배스님은 "142회 총회에서는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 원로회 의법 등 중대법정 등 지난 총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스님은 또 "청림회 일여회의 141회 총회 불참과 성명서 발표는 9월 총회를 여는 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 청림회 일여회가 제기한 통국학도 간담회 불참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장 법등스님과 사무처장 영배스님, 총무부과위원장 영담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해인-송광-영산-금강율원 계율전문 교육기관 인가

조계종 "사미의제 안따르면 비구계 안준다"

조계종은 종단 공식 율원 4곳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또 사미의제에 따르지 않는 사미수에 대해서는 비구계를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원은 19일 교육원장 일민, 교육위원장 법산, 교재편찬위원장 무관, 역경위원장 장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해인율원(율원장 해능) 송광율원(율원장 지현) 영산율원(율원장 철우) 금강율원(율원장 모엄) 등 4개 율원을 계율 전문교육기관

으로 인가했다.

이날 교육원회의에서는 사미·사미니 의제 전면 실시, 학사 기본교육기관 학사관리 개선책 추진, 졸업고사 실시 추진 등 승가 기본교육 진흥 종합대책안도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이 사미의제 실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교육원은 승가위계 확립과 승공 진작 차원에서 승가대학(강원) 통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기초선원 등

20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생인 사미·사미니의 의제를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직자 및 학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제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총무원 호법부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실사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종단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보류, 의제 미착용 사미·사미니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 중단, 식차나마니계, 비구·비구니계 수계신청 서류 접수시 의제 착용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조계종, 스님 대상...9월부터 석달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체계적인 포교교육의 정립과 포교전문인력 양성 및 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9월6일부터 석달간 스님을 대상으로 포교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처음 실시한다.

교육은 9월9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4시에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분말사 및 도심 포교당 주지스님, 소임자를 비롯해 포교에 관심있는 스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인원은 40명(선착순 마감)

이며 이수자에게는 교육 필증을 수여, 종단 인시에 반영한다.

교육과목은 포교론(3시간), 포교실무(6), 계승 포교론(2), 보살행 교육(5), 타종교 포교사례(3), 실습(2, 자비의 진화 직접 상담 및 포교모범 사찰 견학) 등이다. 교육비는 정규 교육생 10만원, 청강생(재가자 일부) 과목당 1만원이며 접수마감은 9월4일이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사서실장-성조스님

재무부장-자승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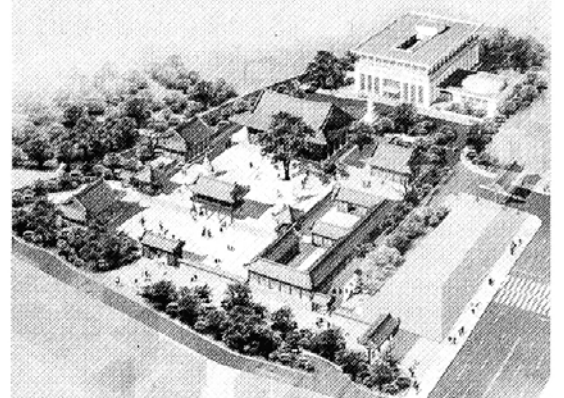
조계종, 20일 부장급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0일 사회부장 성조스님을 사서실장, 재무부장을 자승스님을 재무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무원 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자승스님

총무원장 성조스님과 기획실장 만성스님,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유임됐으며, 문화부장에는 재무부장 일철, 사회부장에는 문화부장 양산스님을 임명했다. 자승스님은 정대스님을 은사로 용주사에서 출가했으며, 동화사 강인 대교과 졸업, 74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영일암과 수원포교당 주지, 10대 총회의원 및 총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 연주소승운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설계공모에서 당선적으로 선정된 일건건축의 조계사 및 총무원청사 조감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설계자 일건건축 선정

11월경 착공예정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6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지명설계에 응한 4개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설명회를 열고 일건건축(대표 황인원)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관련인터뷰 4면>

심사위원인 장흥식 통국대 박물관장은 발표를 통해 "일건건축의 설계작품이 종교건축으로서의 장중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렸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위원장), 총회의장 법등스님, 호계원장 일서스님, 이규복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인섭 통국대 건축과 교수(건축계획 전공), 김규석 통국대 건

축과 교수(구조 전공), 조진구 강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장흥식 통국대박물관장 등 8명이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조계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종단이 안정됐으므로 대응전은 옮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건건축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총본산으로서의 상징성과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한 자연주의 표현, 조계사-총무원-불교회관의 영역별 독립공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설계에 임했다"고 밝혔다.

기본설계가 마친뒤에 따라 총무원은 시공업체 선정, 시설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중 착공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 본지 218호 1면 참조>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현대만평

현대만평



모두 우리자식입니다

737-8881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 화, 수, 목, 금) 19:00~20:30
-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범패의식 (범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 학년	1 학기 (16주)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유식사상
	2 학기 (12주)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국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 비교종교
2 학년	1 학기 (18주)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반야사상
	2 학기 (12주)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사상	◇ 대승불교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천태사상
-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봉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필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범현스님(통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 초빙강사** 월운스님(통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홍(통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 대구 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 제천 모집암 (043)653-3249
 -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 하동 도림사거사람 (0595)882-4585
- 특전사항**
 - ◇ 법사고시 경우 법사호 수여
 -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 통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 포교실습 지망자 범죄처 제공
 -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